



유카탄연합선교회는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4박5일 동안의 일정으로 멕시코 유카탄 지역에서 현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카탄연합선교회, 현지 지도자 대상 세미나 “은혜로웠다”

유카탄연합선교회(Yukatan United Mission)는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4박5일 동안의 일정으로 멕시코 유카탄 지역에서 현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장 이충식 목사를 비롯하여 강유남 목사, 김종국 목사, 박태문 목사, 이병준 목사, 황용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통역은 이춘기 목사가 담당했다.

메리다(Merida) 지역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120여 명이, 플라자 델 카르멘(Playa del Carmen) 지역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8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선교팀. 왼쪽부터 원성우 선교사, 강유남 목사, 박태문 목사, 이병준 목사, 김종국 목사, 회장 이충식 목사, 황용석 목사, 이춘기 목사

선교팀은 현지 사역에 필요한 트럭(중고) 구입 자금을 전달하고, 김종국牧사는 새언약교회의

교우가 기증한 랩탑 2대를 현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